

의료서비스산업 내실화 다진 한 해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제고 · 보건의료정보 교류 · 연구중심병원 육성 · 공공병원 BTL 추진

글_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혁신단 오종희 단장, 박재산 · 박정선 · 조경미 · 강대욱 팀장

2015년도 의료서비스산업의 키워드는 ‘선진화 정책개발과 실행’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의료기관의 경쟁력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CIS 국가,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만큼 충분히 성숙되었다. 이러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복지부와 함께 2015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서비스산업 분야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2015년도 주요 성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는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둘째는 보건의료정보 교류, 셋째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및 지원, 넷째는 공공병원의 BTL 사업 추진 등이다.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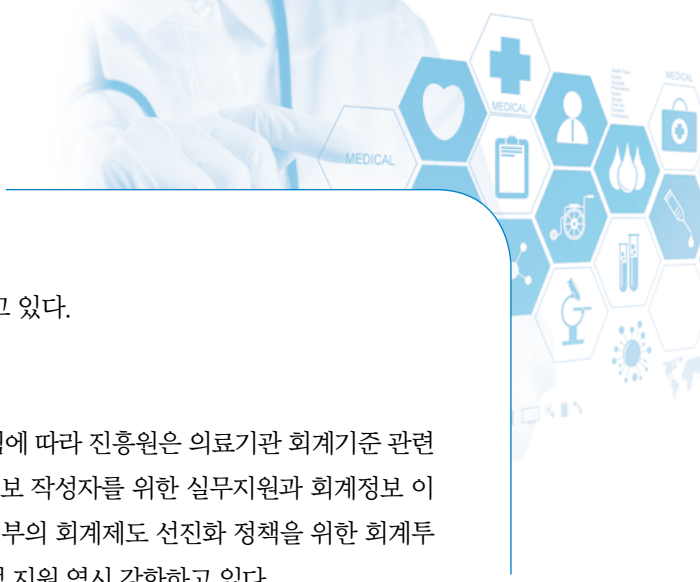
의료기관의 사회적 기능과 경제적 규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공익 법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 측면의 논의는 단편적이고 단속적이었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개원 때부터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복지부와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연구의 주축이었던 의료산업혁신단이 그동안 추진해 온 의료기관 회계기준 사업의 내용과 주요성과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사업 개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¹⁾ 제고를 위한 의료법 개정(2003년)에 따라 모든 종합병원이 준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가 제정된 이후, 회계기준 운영의 체계화를 위한 총괄기구인 보건복지부를 지원하고, 회계정보 작성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관기관(managing



1) 회계투명성 :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높은 질적 속성을 가진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



organization)으로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 목표 및 그동안 주요경과

2006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진흥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관련 정책 이슈들을 검토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활성화를 위해 회계정보 작성자를 위한 실무지원과 회계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정보 활용 방안을 매년 적기에 제시하여 왔다. 또한 정부의 회계제도 선진화 정책을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등 관련 분야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회계분야 전문적 지원 역시 강화하고 있다.

< 주요 성과 >

구분	주요 성과
정책반영활동 (회계기준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을 위한 지원(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및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정비를 위한 개정 TF 구성 및 구체적인 개정(안) 제시 → 최신 회계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한 비교가능성과 정보의 실질성을 제고한 회계정보 도출
정책지원활동 (회계투명성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회계기준 시스템(HAS System) 구축·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자료 수집·검증·분석(모든 종합병원) →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의료법인 외부회계감사지원 시범사업(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및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실현 구체화, 의료기관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요건 충족

예를 들어,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감사원 주관)에서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의료업을 비롯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 및 부채로 처리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영성과 왜곡을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 회계처리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용 및 부채처리 근거를 준용하여 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지원을 통해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계정을 별도의 부채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전·후의 당기순이익을 보여줌으로써 감사원에서 지적한 경영성과 왜곡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제출된 회계자료에 대한 공시가 제도화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가능한 경영능력 및 합리적 수가 산정을 위한 기반구축 실현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고, 그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제출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간의 경영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였고, 2016년에는 대국민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다.

향후 추진계획

향후에도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 주관기관으로서 진흥원의 역할 정립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특히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및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먼저 통일된 회계기준을 병원급 의료기관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의료기관이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외부회계감사지원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개정 입법예고(2015.9.21),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개정 행정예고(2015.9.21)
 3) 의료기관 회계기준 시스템(HAS System) :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결산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산화하는 Database 기반의 온라인 통합분석시스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의료기관의 경영특수성을 반영한 의료기관 대상 외부회계감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구축

보건의료정보화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추진할 보건의료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립하여 보유해야 할 청사진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진료정보교류의 기반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보건의료정보화, 유헬스, 스마트헬스, 디지털헬스, 의료-ICT 등 표현은 다르나 모두가 지향하는 것은 보건의료영역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안전성이 담보되는 가운데 기기, 서비스 등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헬스 3.0 시대를 맞아 이러한 보건의료정보화가 큰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해외 선진국들은 고령화, 의료비 증가, 의료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이미 보건의료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 체계, 법제도, 충분한 자원 확보를 통해 국가 수준에서 대국민 서비스로 다가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2010년 이후 중단된 국가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진흥원 내에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단(추진단장 서울대 의대 황희 교수)을 구성하고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정보화를 향한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그 첫 번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향후 2020년까지 추진될 보건의료정보화의 비전, 추진전략, 추진과제와 세부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정보화 전략계획 2020」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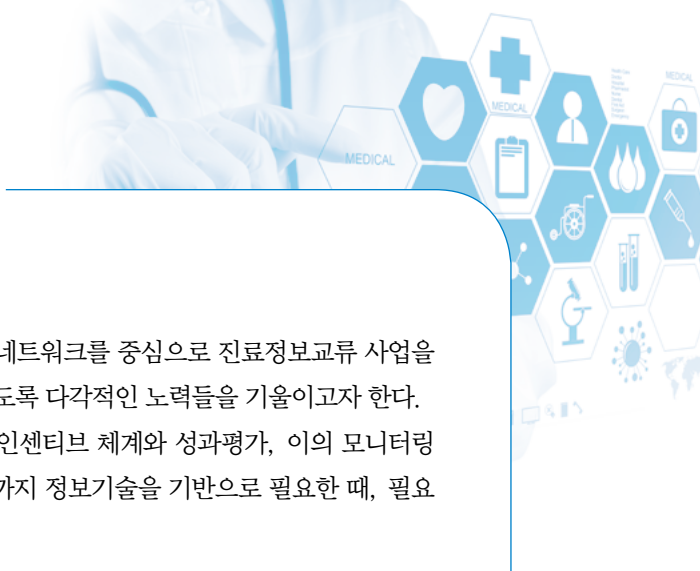
두 번째로 전략계획 수행을 위한 근거자료로써 국내 1,722개 보건기관·의료기관·약국을 대상으로 정보화 현황조사를 수행하였다.

세 번째로,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표준과 국내 관련 법제도를 반영한 보건의료분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관련 동영상을 개발하였고, 연내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

네 번째로, 현재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입력하는 텍스트가 보다 구조화되어 재사용되어 지도록 다빈도 5개 압종(대장암, 위암, 간암, 갑상선암, 폐암) 병리검사결과에 대한 정보 구조화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누구나 참조할 수 있도록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올 연말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2016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거점병원과 협력 병의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자 한다.

정보화에는 피할 수 없는 투자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보화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와 성과평가, 이의 모니터링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지만,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2020년까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및 지원

병원이 우수 인력과 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임상정보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 연구생산성 저하, 산업화의 병목(death valley) 현상 등을 초래함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제도에 대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정(2011. 8. 4) 으로 연구중심병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13년 10개 연구중심병원이 지정되었다.

우선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중심병원 평가 및 지원 사업은 연구중심병원이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하고,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산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이후 약 3년간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아래와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연구지원 거버넌스 구축

- 연구중심병원 선정 기관 10개소는 이전의 진료 중심의 연구 체계를 탈피하여 조직 개편 및 직제 신설 등을 통하여 진료 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전담 조직 체계를 중심으로 임상 지식을 활용하여 R&D를 수행하며 산·학·연과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플랫폼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다.
- 병원 조직과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관리 및 지원을 위한 연구전담조직을 설치하였고, 인사, 총무, 재무, 교육, 연구 개발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였으며 매년 충원하고 있다.
- 전문연구인력 확보 및 활용을 위하여 임상연구 전담 직군을 신설하고, 다양한 진료 track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개정하였으며,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임상시험의 윤리적 타당성과 과학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임상연구 전반(IRB, 임상시험센터 등)의 관리를 위한 QA 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국내외 인증을 받는 등의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중심병원 10개 기관은 식약처 임상시험실시기관 차등 관리제 평가에서 우수(A+) 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다.

연구인력의 증가 및 연구 역량강화

- '12~'14년 투입된 연구중심병원의 핵심연구인력(연구참여임상기사, 연구전담의사, 선임급 연구전담요원 수의 합)은 2012년 1,803명, 2013년 1,998명, 2014년 2,27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핵심연구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병원에서는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추가채용을 통한 인력 증원, 정기적인 세미나 및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연구인력의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을 통한 연구참여 독려, 연구인력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등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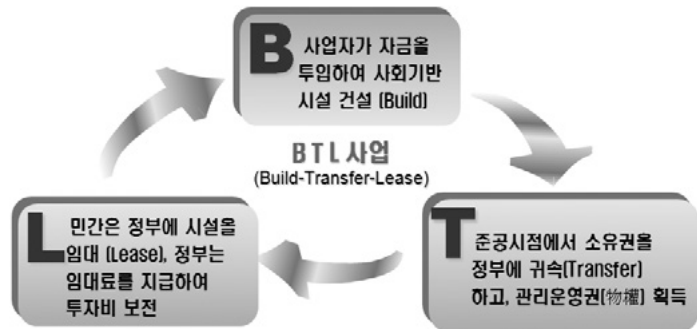
연구비 투자의 지속적 확대

- '12~'14년 연구중심병원 10개소의 총 연구비는 약 1조 6,011억원(2012년 482,6억원, 2013년 528,7억원, 2014년 589,7억원), 연평균 5,337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수치로서 연평균 3.2% 증가하였다.
- 10개 병원의 자체연구비 총액은 2012년 약 217억원, 2013년 약 563억원, 2014년 약 76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자체연구비 증감율도 2013년(1.6%)에 비해 2014년(35.6%)에 크게 상승하였다.

연구실적 증가

- (논문) '13~'14년 연구중심병원에서는 총 33,772건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핵심연구인력 1인당 연구논문 실적(수)은 2013년 2.8(±0.6)건, 2014년 6.4(±0.4)건으로 상승하였다.
- (특허) '13~'14년에 총 2,166건의 특허가 등록되는 성과를 창출(국내 1,297건/국외 869건)하였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수는 2013년 535건, 2014년 1,63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임상시험) '13~'14년의 임상시험 수는 2013년 1,725건, 2014년 1,856건으로 총 3,581건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신의료기술) '13~'14년에 연구중심병원에서는 2013년 37건, 2014년 22건으로 총 59건의 신의료기술을 인증 받았다.
- (기술료) '13~'14년 연구중심병원에서는 총 340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013년 약 22억원, 2014년 약 77억원으로 총 99억원의 기술료 수익을 확보하였다.

요약 정리하자면, 연구중심병원 지원 및 평가 사업은 2013년 4월 연구중심병원 지정이후 연차평가 등의 사후관리('14~'15년)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과 역량을 구비하도록 유도해 왔다. 연구중심병원은 기존병원이 진료 중심에서 벗어나 연구와 진료를 병행할 수 있는 연구지원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연구인프라 구축, 연구인력 증가, 연구비 투자 확대, 연구실적의 증가 등 사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병원 현대화를 위한 BTL 사업의 성과 분석

공공병원 시설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는 재정지출 소스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BTL 사업방식을 도입하였다. 의료산업혁신단은 다년간 지방의료원 및 국립병원에 대한 BTL사업(지방의료원 6개소, 국립병원 1개소, 국립대병원 1개소, 적십자병원 1개소, 한방관련 시설 5개소 등 총 14개소)을 대항하여 진행하여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다. 공공병원의 현대화를 위한 BTL사업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 한 결과, 전반적으로 환자수가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며 환자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경영 및 운영 성과가 향상되었다.

- BTL사업(임대형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자금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민간자금을 선투입하고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원금+수익률+(시설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상환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다수의 BTL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전문기관의 부재와 사업추진부서의 전문성 부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문 용역형태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
-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은 강진의료원, 충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3개 시설과 한약재유통지원시설 5개소 등이다. 공주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3개 시설과 서울대병원, 국립마산병원, 영주적십자병원 등이 사업진행 중이다.
- BTL 사업 이후 의료원들의 진료실적은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공히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병상이용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수익도 평균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의료이익 및 순이익율의 경우에도 적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재무비율은 총수지비율 및 의료수지 비율 모두 증가하여 재무적 안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자만족도의 경우에도 입원환자, 외래환자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환경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지방의료원 등 공공시설의 BTL사업 추진현황

운영여부	시설명	병상규모	개원시기	비고
운영중	강진의료원	250병상	2012	신축사업
	충주의료원	300병상	2012	신규부지 이전사업
	서귀포의료원	300병상	2013	기존부지 내 사업
	한약재유통지원시설 (평창, 화순, 안동, 진안, 제천)		2010	신축사업 (전천후 저장/전처리/검사/전시 사업 등)
개원전	공주의료원	300병상	2016(예정)	신규부지 이전사업
	안성병원	300병상	2017(예정)	신규부지 이전사업
	이천병원	300병상	2018(예정)	기존부지 내 사업
	국립마산병원	300병상	2017(예정)	기존부지 내 사업
	서울대학교 병원	(외래시설)	2019(예정)	기존부지 내 사업
	영주적십자병원	150병상	2017(예정)	신축

결론적으로 2015년은 의료서비스산업 분야 내실을 다지면서 2016년부터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였다. 요약하자면 '16년부터는 회계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인터넷에 올리는 공시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하였고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정보교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보화 전략계획(Health IT Strategic Plan 2020 : HI-SEA)을 수립하여 지원하였으며 동시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작업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육성 및 지원 사업에서는 '13년도 지정된 10개 연구중심병원을 3년간 지원하면서 기존 R&D 사업 개념과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의료혁신단은 내부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연구과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공공병원의 BTL사업 측면에서 일반적인 BTL사업의 효과를 상회하는 운영상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